■ 아름다운 이야기

"시어머니 끝까지 모실 겁니다"

말기 암환자 남편과 치매 시모 봉양하고 있는 감만1동 권 숙 이씨

권숙이씨가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말기 암환자인 남편과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고 있는 며느리가 있어 훈훈한 감동을 던져주고 있다.

감만1동 권숙이(62)씨는 5년째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며 효를 몸소 실천해 오고 있다. 넉넉지 않은 살림이지만 매 끼니마다 따뜻한 밥과 국을 밥상에 올리고 있다. 정신이 혼미하고 기력이 약한 시어머니는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 숙이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집안 청소와 이불빨래를 하고 있다. 3~4개월 전부터 부쩍 치매 증상이 심해진 시어머니를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프다는 그녀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정성을 다해 모시는 것이 자식 된 도리라고 믿고 있다.

숙이씨의 어깨에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놓여 있다. 7년 전 간암판정을 받고 투병중인 남편 김종태(63)씨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녀는 팔방으로 뛰고 있다. 말기암환자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남편을 위해 몸에 좋다는 약을 구해 먹이고 있지만 차도가 없어 눈물로 밤을 새울 때가 다반사라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도 가슴이 아프지만 암투병을 하고 있는 남편을 바라 볼 때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떻게든 살리고는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숙이씨는 24세에 남편과 결혼, 2남을 뒀다. 신접살림 때부터 시작된 시집살이는 결코 녹록지 않았다. 시부모를 모시고 조카들까지 챙겨야 하는 고된 삶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하는 남편을 기다리며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다.

힘든 시절을 보내고 이제 좀 자리를 잡을 만 하다 싶을 무렵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들어야만 했다. 남편이 간암판정 받고 그녀는 실의에 빠졌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병간호에 정성을 쏟았다. 진통제를 바꿔가며 고통 받고 있는 남편을 위해 일주일에 한번씩 서울과 부산을 오르내리고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함께 했다. 그런 그녀의 정성 때문인지 남편을 기적과도 같이 7년간을 버텨냈다. 이때부터 홀로 사시던 구순의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셨다.

9남매 중 다섯째인 남편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는 모습은 동네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주위에서 칭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올 연말을 넘기기 힘들다는 의사 진단을 받은 남편 김종태씨는 내가 죽으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나 늘 고민이다. 이런 남편에게 숙이씨는 늘 같은 말로 대답한다.

"당신이 잘못돼도 나는 어머니를 모실께요. 걱정하지 말고 당신 몸이나 생각하이소"

김종태씨는 이런 숙이씨를 보고 "천사 같다"며 눈시울을 붉힌다. 그녀 역시 눈물 흘리는 남편을 보고 소리 죽여 흐느낀다.

그녀의 바람은 오직 하나 가족들의 건강이다.

"제가 그렇게 특별난 효부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그저 어머님 건강하시게 여생을 보냈으면 좋겠고 남편이 기적같이 다시 건강을 되찾았으면 하는 게 저의 마지막이자 간절한 소망입니다"

권숙이씨와 같이 병든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핵가족시대를 맞아 가족애가 퇴색되어 가는 현시대에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진다.

김정희 기자

■ 화제의 인물 – 용호2동 SK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신 왕 길 감사

출산 가정에 2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저출산문제 심각함 인식
한자녀 더 갖기 운동 참여
경로당 등 찾아 이웃사랑 실천도

민간인의 신분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주민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용호2동 SK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신왕길(70)감사는 지난 6월부터 용호2동에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20만원을 지원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자녀 더 갖기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있다.

그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키로 마음먹게 된 것은 매스컴을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신 감사는 "우연히 우리나라가 2050년이면 저출산 문제로 존망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며 "노령화사회에 들어가면서 젊은이들의 세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키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임신한 젊은이들을 보면 대견하고 고맙게 느껴진다는 신 감사는 "이제는 아이를 낳는 것이 애국하는 길인 시대가 도래했다"며 "나름대로 출산장려운동을 벌여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두 아들을 출가시킨 신 감사는 자녀들에게도 출산을 장려해 손주를 두고 다복한 가정생활을 꾸리고 있다.

현재 오륙도SK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지역을 위한 봉사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지역의 독거노인을 한 음식점으로 초청해 점심을 대접했으며 틈나는 대로 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해 성·금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오고 있다. 2007년부터 매년 연말이면 사랑의 열매에 100만원 이상을 기부하고 있다.

신 감사는 "봉사는 돈이 많다고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베품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며 "봉사자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만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또 "힘 닿는데까지 일하며 소득의 일정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고 싶다"며 자신의 노후가 봉사의 나날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사상에서 30년 가까이 대강볼트 너트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사업가 신왕길씨는 남구로 이사 오기 전 주민자치위원장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민희 기자

감동 전해주는 행정서비스 실현하고파

오륙도 친절직원

문현3동주민센터 장유진씨

세심하고 상냥한 민원처리 '칭찬자자'
친절하고 베푸는 삶 실천 부모님이 롤모델

문현3동주민센터에 들어서면 장유진(지방행정서기보·29)씨를 금방 알아 볼 수 있다. 밝은 미소와 친절에 민원인들의 감동어린 칭찬 엽서가 여러 장 날아들었다.

양현주씨는 "동사무소에 들리면 항상 웃는 얼굴로 업무를 처리 해주시고 어르신을 잘 공경하는 예의바른 공무원입니다. 아낌없는 칭찬 부탁드립니다."며 정성카드를 보내왔다. 또한 신화씨는 "서류 준비 차 여러 번 방문했는데 부족한 부분들을 친절히 알려주며 마무리 할 수 있게 도와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싹 가시게 해 줍니다. 늘 사랑스런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꼭 친절직원으로 추천합니다. 옆 동료인 박현욱씨도 같이 추천합니다."라고 엽서를 보내왔다.

민원인들의 아낌없는 칭찬을 한 몸에 받은 장유진씨는 등·초본 인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자주 방문하는데 때론 말씀도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글을 모르는 분들도 계신다. 그럴 때는 천천히 여러 번 말씀드리고 직접 글씨도 써 주어 업무 처리를 해준다. 최근에는 한 민원인의 아들이 혼인신고를 했단다. 등본을 떼러 왔는데 등본상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의아해 하는 민원인에게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업무처리를 해준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요즘도 혼인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되는 줄 아는 민원인이 있다고 한다.

그녀의 세심하고 상냥함은 민원인 뿐 만 아니라 직원들도 칭찬일색이다. 옆 동료들은 유진씨의 칭찬카드는 아마도 직접 쓰지 않은 것이 더 많을 것이라며 간식까지 챙겨 오는 할머니도 계신다고 한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베푸는 사랑. 사랍 사는 세상에서 그녀는 부모님의 좋은 권고를 새기고 실천하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민원인을 맞이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공무원. 뒤처지지 않은 나라의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공부를 계속하고 있단다.

최정순 기자

부산 복지의 달 수상자 선정

■ 사회공헌 베품부문 버금장
최 강 덕 할렐루야치과 원장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용호1동 김 천 회 씨

■ 부산광역시장상
• 이웃돕기부문
부산은행 대연동지점
• 사회복지부문
정 혜 옥·서 영 관·이 순 희 씨

제18회 부산복지의 달을 맞아 평소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이 지난 15일 오후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무의탁 노인들을 위해 진료비와 틀니 지원 사업 등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최강덕 할렐루야 치과의원 원장이 사회공헌 베품부문 버금장을 받았다. 용호1동 김천회씨는 사랑나눔회를 통해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부산은행 대연동지점(지점장 이상태)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 2011년도 이웃돕기 유공자로 선정, 이날 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정혜옥(대연2동), 서영관(남구장애인복지관), 이순희(사랑샘)씨 등이 부산광역시장 상을 받았다.

■ 사람과 사람

공무원 미술대전 입선

최영자 주민복지과 과장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제21회 공무원 미술대전 서예한문 부문에서 입선했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보건교육 경연대회 대상

엄희정 주무관(남구보건소 근무)이 최근 열린 제10회 전국 보건교육 경연대회에서 '대학생활의 ABC-건강한 대학 음주 문화만들기'라는 주제로 대상을 받았다.

제10회 한국 소믈리에 대회 우승

와인바 '비나포' 이 승 훈 대표

경성대에서 와인바 '비나포'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훈(32) 대표가 제10회 한국 소믈리에 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이 대표는 "와인 종주국 프랑스의 농식품진흥공사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소믈리에 대회에서 우승해 기쁘다"며 "4년 도전 끝에 이룬 성과여서 감회가 남다르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의 이번 수상은 4년 도전 끝에 이룬 성과로 그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2005년 우연한 기회에 와인을 알게 됐다는 그는 2007년 프랑스 와인 생산지를 찾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세계에 200여명이 소유하고 있는 보르도와인협회 인증강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전국 고교생 농어촌문학상 대상

예문여고 이 예 림 양

예문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예림 양이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회 전국 고등학생 농어촌문학상 시상식에서 수필부문 대상에 입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 예림양은 이번 공모에 '소의 눈물'이란 작품을 출품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시사적인 내용을 서정적인 문체로 잘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림양은 "부족한 작품을 좋게 봐준 심사위원들과 글쓰기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에게 먼저 감사드린다"며 "구제역이라는 가슴 아픈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농촌의 실상을 알게 됐고 앞으로도 사회적인 문제를 담은 작품을 다루고 싶다"고 말했다.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불교 강의!!
제25기 성암사 경남불교대학
가을학기(주.야간반)신입생 모집

대한불교조계종 전통사찰 17호인 아름다운 절 부산 남구 황령산 성암사와 부산불교 교육의 명문인 경남불교대학에서 제25기 가을학기(주.야간반)수강생을 접수합니다.
경남불교대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참된 삶의 방법론을 제시해주는 마음의 학교 해탈의 도량입니다.
현재 불교방송 수요법문을 진행하시는 응현스님의 명강의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설정하게 해줍니다.
불자들만이 아닌 무종교인, 타종교인들까지도 참여하는 지혜의 도량으로 정평이 나있는 경남불교대학에서 지혜와 공덕의 바다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초교리반]
교육대상 : 불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 누구나
수업기간 : 9월~2월 (6개월)
수업일시 : 낮 반 – 화, 목 (오후 2시~4시 30분)
저녁반 – 수, 금 (오후 7시 30분~10시)
교육내용 : 불교 기초교리, 근본불교, 불교의식, 비교종교학, 참선수행법, 불교신행, 생활의기도방법, 사찰에서의 기본예절, 생활의 지혜 등

[경전연구반] (3개월)
교육내용 : 반야심경, 천수경, 관세음보살보문품경, 아미타경, 신심명

입학식 : 9월 25일(일) 오후 2시
문의 : 성암사 종무소 635-3744~3

웃음치료와 유머화법 「조상영 웃음연구소」 수강생 모집

웃음박사 조상영 특별강연 접수중(행사, 연수, 모임 등)
* 현재 부경대학교,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 웃음치료과정 지도교수
* 스포츠서울 2011년 웃음혁신리더 명강사 선정
* 뉴스메거진 2011년 웃음으로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선정

수강시간안내

구분	강의 시간
월요일 오전반	오전 10시30분~
월요일 저녁반	오후 7시~
가족 웃음반	토요일 오후6시~

* 수료증 수여, 웃음치료사, 유머화법지도사 자격증 취득가능 *
(카페명 : 한국웃음치료연구협회 : http : //cafe.daum.net/johahahoho)
조상영 웃음연구소 : 611-3600, 010-4567-2233(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정문 맞은편 4층)

윌리스요양병원
중풍·치매·파킨슨병 두통·어지럼·이명클리닉 개소
신경과 / 내과 / 안과 / 피부과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한방과
남구청 입구, 못골전철역 도보 2분 요양병동 운영
Tel.638-7575 www.willishospital.co.kr

아모레퍼시픽 헤라·설화수 주부사원 모집
일하는 여성은 아름답다!
• 급여외 의료비, 경조비, 교육비 등 지원
• 메이크업 등 체계적 교육지원
• 10시 출근, 일·공휴일 휴무
• 기타 다양한 지원혜택
헤라·설화수 판매·상담 ☎ 627-2225

친절상담→최경숙 부장
주·야 직통상담 : 011-579-1122
아모레퍼시픽 남부지점 T.627-2225

단전호흡, 기체조, 명상 국선도
우리의 몸이 국선도를 필요로 할 때
•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며 화를 자주 낸다
• 불면증으로 항상 수면이 부족하다
• 각 관절통증, 특히 목,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 온 몸이 뻐근하고, 살이 찌는 것 같다
•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
• 학생의 경우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 당뇨 초기증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오전 7:00~8:20, 10:30~11:50
오후 6:00~7:20, 7:30~8:50
국선도 대연수련원 ☎ 612-9393
(대연5동 기아자동차 옆)